

# 전남 10년새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 12곳 늘었다

2015년 1곳→2024년 13곳  
22개 시·군 중 59% '소멸대상'  
전체 청년 비율 15%에 그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3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전

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에서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함평, 강진, 보성, 장흥, 고흥, 해남, 신안, 완도, 진도 등 총 13곳에 달했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중 59.1%가 소멸 위험권에 들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특정 농어촌 일부가 아닌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당시 전남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

은 고흥 1곳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해당 지역이 12곳 늘어난 셈이다. 청년층 감소와 고령층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인구 구조가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주민등록상 기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조로 나눈 비율이다. 해당 지수가 0.2-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전남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32로 전국 평균 0.59를 크게 밑돌며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소멸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율은 2015년 30.7%에서 2024년 39.4%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남 15.1%로 전국 평균 19.3%에 크게 못 미쳤으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P)은 5만4천375원이지만 소멸 고위험 지역 평균은 3만5천179원으로 전남 전체 대비 1만9천196원 낮았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경제력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안태호 기자

## “지역민과 함께 한 57년…100년 재도약 다짐”

광주은행 창립 57주년 기념식 개최  
지역 상생 등 미래 4대 핵심 전략 발표

광주은행은 20일 본점에서 창립 57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고객과 은행 발전에 공헌한 직원에게 감사패와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은 광주은행의 57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광주은행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1968년 창립 이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고객, 지역민, 그리고 1천700여 임직원의 헌신 덕분”이라며 “광주은행은 언제나 지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는 청년층 유출, 고령화, 산업구조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금은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이끄는 은행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하는 생동감 있는 광주은행을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금융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미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총자산 100조원을 향한 초일류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은행은 창립 57주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 실천 ▲미래 수익 기반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AI 기반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 우위 확보 ▲창조적 파괴 기반의 조직 혁신성 강화 등 금융환경 변



20일 열린 광주은행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박지원(왼쪽부터) 국회의원, 고재유 전 광주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100년 준비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지역 신용보증기관에 7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서민금융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외국인 금융센터를 운영을 통해 언어·제도 장벽이 있는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금

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스뱅크와 협업해 금융권 최초 공동대출 상품 '함께대출'을 출시해 디지털 기반 금융혁신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에서 지방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역재투자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관련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조달청, 지역 혁신제품 판로확대 지원

파트너십 데이 통해 가치 공유

광주지방조달청은 20일 “전남과 오는 21일 지역 혁신기업과 함께 수요기관을 찾아가는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한 ‘파트너십 데이’는 공공조달 길잡이 상담을 통해 혁신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터널·지하차도 진입차단장치’와 ‘관로부식 방지 시스템’ 제조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에는 ‘터널·지하차도 진입차단장치’ 제조기업과 함께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여수시를 방문해 제품 특성 및 적용 사례 등을 소

개하고 향후 실증 및 구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1일에는 ‘관로부식방지 시스템’ 제조기업과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제품 홍보 및 구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파트너십 데이는 단순한 제품 홍보 행사를 넘어 조달청·기업·수요기관이 함께 혁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기업과 수요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따뜻한 겨울 나기’ 지원

외국인 근로자에게 침구·안전용품 전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20일 “완도군 내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함께 하는 알터, 따뜻한 삶터’ 겨울나기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완도군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동티모르 근로자 20명에게 겨울 침구류와 함께 화재감지기 등 안전 관련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어업 사업장은 해양환경 특성상 위험요인이 상시 존재하며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1천500개 이상의 어업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 노동력 제공과 지역경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전남서부지사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산업을 함께 지탱하는 동반 주체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착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침구·안전용품 전달은 외국인근로자가 따뜻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맞춤형 보호·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행사에 참여한 스리랑카 근로자는 “늦은 나이에 맞는 겨울이 적절치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줘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자비나눔의 원력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22회 쌀 나눔 및  
제16회 지장행자 사경 및 봉사상  
연꽃상 시상식

2025년 12월 5일(금) 오후2시 | 소원정사부처님전에서

불자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1,500분의 어렵고 힘든 부처님들을 위해 함께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쌀 한 포대가 어려운 부처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 10월 13일 ~ 11월 30일까지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명도계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문의 및 접수 : 062-366-3332